



# 낮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예의 바른 무관심의 시대, 연결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이점들

The Power of Strangers

조 코혜인 지음 | 김영선 옮김

## ◆ 책 소개

**“지금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도 한때는 낯선 사람이었다”**

**혐오와 단절의 시대를 가로질러 다른 세계를 만날 용기를 낸다는 것의 의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다정함의 쓸모, 친절의 이유’를 찾는**

**괴짜 저널리스트의 유쾌한 지적 여행이 펼쳐진다!**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수상한 세상에서 연결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이점을 탐색하는 책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이 출간되었다. 외로움과 고립과 단절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는 걱정스럽지만, 그렇다고 전염병 보균자일지도, 사기꾼이거나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더 싫다. 적절한 거리 두기와 예의 바른 무관심이 도시인의 에티켓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세계는 평평해지고 넓어졌다지만 실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왜소해지고 쪼그라들었다. 우리는 벽을 쌓고, 이방인을 경계하기에 바쁘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지금 가장 친한 친구도, 사랑스러운 연인도, 믿을 만한 동료도 한때는 모두 ‘낯선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보스턴 글로브〉 〈뉴욕커〉 〈와이어드〉 등에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는 베테랑 저널리스트 조 코헤인은 이런 시대에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취재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기술을 배우는 클래스를 수강하고, 뉴욕 한복판에 간이 고해성사실을 꾸려 ‘무조건 경청해주기 운동’을 벌이는 사회운동가를 취재하고, 미국 횡단열차를 타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인류학자와 심리학자, 생물학자, 정치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만나 그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갈무리한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처럼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고, 말콤 글래드웰처럼 다양한 학문의 연구들을 조사하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처럼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 낯선 세계와 사람을 탐사하는 저자의 글은 인류가 왜 고립과 단절의 유혹을 넘어 끊임없이 연결을 선택했는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왜 다정한 태도로 친절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다른 세계를 만날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영국은 왜 ‘수다 카페’ ‘수다 버스 타는 날’을 만들었을까?**

**대화는 살아가는 방편이 아니다, 살아남는 전략이다**

영국 적십자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5분의 1은 자주 또는 항상 고독감을 느낀다. 2018년 영국은 첫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이 고위직 국가 공무원은 느슨해진 사회 유대를 회복해 결속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그렇게 시행된 것이 영국 전역의 찻집과 술집에 900군데 넘게 설치된 ‘수다 카페’와 BBC 방송의 공공 프로그램 ‘수다 버스 타는 날’이었다. 사회 유대 회복의 출발점으로 낯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한 것이다.

조 코헤인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덮친 고독감의 원인은 복잡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대화하는 법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혹은 관심이 있어서 서로를 외면한다. 말장난처럼 느껴지겠지만 도시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탐구한 ‘예의 바른 무관심’이 그것이다. 많은 이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 생활에서 필연적인 감각의 과부하로부터 상대를 배려한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이다. 침묵이 미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게다가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 필요를 없앴다. 이제는 피자를 먹기 위해 가게 점원과 통화하는 사소한 접촉으로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 사회성은 위험하리만치 떨어졌고 그 사이 차별과 혐오, 불평등이 증첩돼 동료 시민을 낯선 이로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려 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을 공감 능력, 복잡한 동기가 없는 생각이 모자란 생명체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떨어져 나간 결속의 자리엔 고립, 파편화된 개인들이 남았다. 이런 고독감은 사회 자체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의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흡연만큼 해로워서 공공보건마저 위협한다. 대화는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원을 더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 지하철 속 인간이 서로를 물어뜯지 않는 이유 협력과 환대는 인류의 오랜 본능이자 도덕 그 자체다

만일 서로 낯선 침팬지 50마리가 지하철 한 칸에 같이 있다면 그곳은 곧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난장판이 될지도 모른다. 반면 보노보는 침팬지와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지만 낯선 무리와 어울리고, 심지어 처음 본 상대와 먹이를 나누기도 하며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 보노보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뇌 부위에 희백질이 더 많은데, 이는 상대의 고통을 인지하고 공격 충동을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개나 기니피그 같은 인간에게 길들여진 다른 동물과 달리 보노보는 스스로 친화력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에 적응한 유인원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저자는 자기길들이기 개념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낯선 이들 사이에서 살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한다. 낯선 이와 잘 지내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며, 낯선 이에게 말 걸기가 진화상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말이다.

사실 인간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고 광범위하게 뒤섞여왔다. 하버드대학의 유전학자 데이비드 라이시 말대로 “인간 무리는 죄다 교잡체”였다. 인류가 200만 년 동안 소규모 무리끼리 작은 영역에 머물면서 낯선 이에게 빗장을 지르다가, 어떤 우연 또는 오산으로 순식간에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낯선 이에게 둘러싸이게 됐다는 기존 생각은 틀렸다. 함께 사냥하고, 먹고,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의 생각과 요구를 직감하고 조율해가면서 개인과 집단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이런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인간 도덕성의 시초가 됐다. 협력과 환대는 우리의 오랜 본능이자 도덕 그 자체였던 셈이다.

이 책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은 우리의 조상인 구석기인들이 낯선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부터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는 무형의 이유, 제우스를 비롯해 기독교와 이슬람 등 종교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개인들을 어떻게 ‘우리’로 묶었는지, 왜 정부가 잘 기능하고 신뢰 수준이 높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불친절하고, 그렇지 못한 중동과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친절한지, 나무랄 데 없이 질서

정연한 핀란드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왜 불행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등 인류사 전체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부로서 진화한 환대와 협력의 사례를 훑으며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 **낮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현대의 믿음은 왜 생겼을까?**

### **낮선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는 흥미진진한 탐사**

낮선 이에게 말 걸기가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진화상 이점으로 작용했음에도,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떼면떼면하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는다. 언제부터 우리는 낮선 사람을 경계했을까? 낮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현대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1980년~1990년대에 성장한 사람이라면 ‘낮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규칙을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넣었을 것이다. 수상한 승합차와 공짜 사탕에 대한 섬뜩한 인쇄물이 나돌고, 경찰과 학교는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당부하고, 곳곳에서 ‘낮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생생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세대 전체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사법부에 따르면 낮선 사람에 의한 유괴는 전체 실종 아동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 대상 범죄에서 낮선 이의 범죄 비율은 약 10%에 그쳤고 나머지 90%는 가족, 지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것은 다른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낮선 사람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양가감정을 이용해, 언론과 국가기관은 유독 낮선 사람에 대해 적의를 품도록 부추겨왔다.

저자는 낮선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섰다. 15개 국가에서 ‘낮선 이들의 성찬’을 진행한 옥스퍼드뮤즈재단의 시어도어 켈던부터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책과 사람 이야기를 SNS에 실어나르는 ‘서브웨이 북 리뷰’ 운영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토크바를 열어 무작위의 낮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뉴욕 지하철 살롱’의 진행자까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 재기 넘치는 인터뷰를 읽다 보면 낮선 사람에게 지녔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다른 세계를 만날 용기가 한 뼘 더 커진다.

## **지금 우리에게 사회성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 **단절의 시대를 넘는 새로운 상상력과 기회**

“낮선 사람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통칙이다.” 사회학자 레슬리 하먼의 말이다. 저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다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넘어 현실 세계 사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한데 섞일 수 있는 장소는 어떤 특징을 갖췄는지, 왜 공공장소는 문턱을 낮추고 좀 더 평등해야 하는지, 이런 평등한 장소는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마음을 열도록 유도해 통합의 장소가 되는지 밝힌다. 사람들의 긴밀한 유대를 고민하는 도시행정가라면 참고가 될 만한 지침이 많다. 더 나아가 낮선 사람과 서먹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끝내는 방법에 관해 직접 클래스를 수강하며 깨우친 실용적인 조언도 담았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한자리에 앉아 서로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브레이버에인절스’ 사례를 통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

서로를 인간 이하라고 여기던 양속들이 마주 앉고, 대화하고, 의견을 좁히고, 협력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신석기 시대 인구의 폭증과 이방인의 대대적 유입은 사회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갈 수 있었지만 조상들은 초협력과 초사회성을 발휘해 혼란을 수습했고 이후 도시와 주요 종교, 민주주의와 계몽주의를 발명해냈다. 정치적 분열이 만연하고,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집단이 존재 방식을 묻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성의 르네상스다. 저자는 역사학자 마거릿 제이콥의 말을 빌려 다른 나라, 다른 신념,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을 호기심, 친절, 관심을 갖고 경험하는 능력이 인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자질이라고 단언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방랑자이며 여행자, 이방인이자 일시체류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호기심, 친절함, 다정한 태도를 잃지 말고 낯선 사람과 연결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 저자·역자 소개

### 조 코헤인(Joe Keohane)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만나고 발견하고 소개하는 것이 직업인 저널리스트이다. 잡지 〈에스콰이어〉, 〈안트리프러너〉,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엄’ 등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현재 〈보스턴 글로브〉, 〈뉴요커〉, 〈와이어드〉 등에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첫 책이다.

### 옮긴이 김영선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를 수료했다. 출판편집자, 양육자를 거쳐 현재는 전문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가난 사과리》,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처칠의 검은 개 카프카의 쥐》, 《자동화된 불평등》, 《망각의 기술》, 《지능의 역설》,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 《괴짜사회학》 등이 있다.

## ◆ 차례

프롤로그\_지혜로 가는 길에는 낯선 사람이 줄지어 서 있다

### 1부\_대화는 살아가는 방편이 아니다, 살아남는 전략이다

1. 영국이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한 까닭
2. 아주 사소한 연결이 가져다주는 이점들
3. 초협력하는 유인원, 보노보와 인간
4. 인간이 친구를 만든 이유: 기후, 고기, 살인
5. 우리는 어떻게 집단 대화를 할까
6. 구석기인들이 낯선 사람을 사귀는 법

7. 암트랙 미국횡단열차 속에서 보낸 42시간
8. 환대는 인류의 본능이자 도덕이다
9. 경청이 고독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10.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든 신들

### 2부\_우리는 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11. 거리에 넘치는 예의 바른 무관심
12. 낯선 사람은 수상하다는 왜곡된 메시지
13. 신뢰가 높은 사회가 이방인에게 유독 차가운 이유
14. 핀란드식 개인주의가 봉착한 문제

### 3부\_낯선 사람이라는 경이로움의 원천을 발견하는 법

15. 우리는 언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까: 장소와 상황
16. 서먹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하는 몇 가지 공식
17. 모든 이에겐 반짝이는 이야기가 있다
18. 뉴욕 지하철 살롱이 말해주는 것
19. 적과 수다를 떨어보겠습니까?
20. 일상에서 작은 '우리'를 만드는 법
21. 새로운 사회성 르네상스를 위하여

감사의 말

참고문헌에 대하여

## ◆ 추천의 글

환대는 어떻게 시작되어 중요한 가치가 됐는지, 종교 경전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가르치는지,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공공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켰는지, 더 나아가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현대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탐구하는 책.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끝내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았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팬데믹으로 단절되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우리에게 저자는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준다. 광범위한 사회학적 연구, 생생한 스토리텔링, 읽다 보면 어느새 스며드는 유쾌함까지 겸비한 이 책에는 삶을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 <커커스 리뷰>

인류사 전체와 세계 곳곳을 가로지르는 저자의 스틸 넘치는 몰입형 여행담을 통해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지녔던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월 스토, 《이야기의 탄생》 저자

이 활기차고 탐구적인 작업은 타인을 환영하는 것이 문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보여준다.

—에이야드 악타, 폴리처상 수상 작가

◆ 책 속에서

수년 동안 이뤄진 방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예측하는 최고 변수는 사회관계의 질이다. 사회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더 건강하다. 정신 질환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모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낮다. 간단하다. 하지만 저 연구들은 대개 가족, 친구, 동료같이 친밀한 관계만을 살폈다. 샌드스트롬과 던은 낯선 이와와 상호작용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했다. 친밀한 관계의 대체식이 아니라 보완식으로서, 다시 말해 더 균형 잡힌 사회관계의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말이다. (중략) 그 결과 두 사람의 가설은 옳았다.\_42쪽

왜 낯선 이에게 말을 걸 생각을 하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말을 걸어 처음의 불안이 지나가고 나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설정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답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중략) 인간 역사에서 아주 먼 어느 시점엔가, 우리는 낯선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낯선 이들을 죽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과 거래했다. 우리는 낯선 이들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동료애를 얻었고, 그 관계를 활용해 그들의 더 먼 이웃, 그리고 더 먼 이웃의 자원, 기술, 아이디어를 소개받았다. 이로부터 문명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상의 극적 변이’가 됐다. 즉, 초협력하는 유인원 말이다.\_62~63쪽

왜 우리는 낯선 이를 도울까? 진화생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고심했다. 만약 인간이 제각각 적자생존을 목표로 진화하게끔 설정돼 있다면, 그래서 미래 세대에 유전 형질을 전하기 위해 가차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까운 친척을 우선시하게끔 돼 있다면,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자주 시간과 노력, 돈을 들이고 때로는 목숨이 위험해지기까지 하면서 예전에 만난 적도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은혜를 갚지 못하리라는 게 거의 확실한 사람들을 돕는 걸까?\_71쪽

인류는 훨씬 더 유연하고 생산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유형의 협력, 다시 말해 간접 호혜주의 협력 능력을 발전시켰다. (중략) 마이클 토마셀로는 협력을 위한 이런 노력이 인간 도덕성의 시초라고 봤다. 즉, 도덕성이란 개인의 요구와 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방법이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다. 그렇다. 인간은 언제나 뚜렷한 개성을 가졌으나, 우리 없는 나는 없고 아마도 나 없는 우리는 없을 터이기에, 어느 정도 서로 침투해 모난 구석이 무더져서 무리의 일원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됐다. ‘나’와 ‘너’가 합쳐져 ‘우리’가 됐다.\_80~81쪽

마주 앉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어쨌든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 말이다.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듣고, 신체언어를 관찰하며, 이들이 나보다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님을 빠르게 알게 된다. 온전한 인간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쟁과는 다른 세계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우리에게 모욕당한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이나 분노에 찬 표정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댈 수 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또 동맹자들로부터 받은 ‘좋아요’ 수와 클릭 수와 승인이 다른 사람들의 복잡성을 축소하도록 자극한다.\_104~105쪽

내가 이 여행에서 바라던 바가 곧장 실현됐다. 장거리 기차 여행의 장점은 낯선 이들이 망설임이나 자의식 없이 섞인다는 점이다. 완벽히 유동하는 사회 환경인 것이다. 수렴채집 사회처럼 분열-융합형이다. 사람들은 섞이고 만나며 자신이 전에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하면 낯선 이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 느끼기 쉬운 어색함도 덩달아 줄어든다. 기차에 타고 있다는 이유로 대화에 초대되고, 같은 이유로 언제나 대화를 시작하는 데 쓸 수 있는 말이 있다. ‘어디로 가시나요?’\_124쪽

서구에서 신이 낯선 사람, 즉 소외된 이웃 속에 있다는 생각을 처음 퍼뜨린 건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일 것이다. 그리스인은 낯선 사람이 못 신들의 아버지이자 이방인의 수호자이기도 한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다. 제우스는 자주 떠돌이로 변신해 사람들이 이방인을 박대하지 못하게 했다. (중략) 기원전 360년 플라톤은 《법률》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신중함의 불씨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이방인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불씨는 수천 년 동안 타오르며 전 세계 민속 전통 속으로 들어갔다.\_132쪽

지난 세기의 철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신학자들은 낯선 이에 대한 환대에는 단지 정보나 확실한 동맹자를 얻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뜻깊으면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낯선 이의 도착은 일상의 영원한 반복을 깨고 비범함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독일 사회인류학자 플로리안 뮐프리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낯선 이는 익숙함을 깨뜨리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_142쪽

낯선 이와 대화의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발할 수 있을까? 나는 예머리대학에서 옥시토신 연구를 이끄는 래리 영에게 물었다. 그는 실제로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정말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같은 무리에 속한다는 느낌을 주는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럴 거라고 봐요.” 낯선 이와 긍정적 상호작용 후에 느끼는 이상한 안도감도 옥시토신과 관련이 있을까? 영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옥시토신은 불안을 완화하기 때문이다.\_158~159쪽

로마 제국은 장거리 무역과 제국 활동으로 통합돼 있었기에, 로마인들은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동하며 섞였다. 우리는 오늘날의 다양성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로마 세계는 “제대로 된 용광로였다”고 역사가 램지 맥밀런은 썼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의 삶이 이 이방인들의 결속 본능을 자극했다. 그래서 도시는 여러 민족의 집단 거주지로 쪼개져 공공연히 싸우고 자주 폭동이 일어났다. 도시는 지옥이



었고 죽음이 사방에 널려 있었기에, 도시민들은 세상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때 예수가 갈릴리에 나타났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급진적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복음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삶은 끔찍하고, 신만이 답이며, 낯선 이들로 가득하고 부족 갈등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게르 같은 거류 외국인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었다.\_176~177쪽

내게 종교는 목적이 아니다. 일련의 사회성 르네상스에서 또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엄청난 수의 낯선 이들과 유대를 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사실은 사소한 몇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거의 무한한 정도로 확대할 수 있음을 이 사회성 르네상스는 보여준다. 내게, 이는 진보다. 만약 미국의 기독교인이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수단의 기독교인과 함께 있으면서 즉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미국인이 낯선 수단인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_185쪽

지금 도시인들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대개 서로를 매우 의식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좀 더 미묘할 뿐이다. 이를 설명해줄 중요한 개념이 20세기의 또 다른 도시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이 제안한 예의 바른 무관심이다. 예의 바른 무관심은 도시 거리를 지나가는 두 낯선 이 사이에 열리는 침묵의 의식이다. 균격정을 하는 사상가들이 도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시의 통행인들이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님을 고프먼은 관찰했다. 많은 이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배려했다. 이는 냉담한 무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이다.\_203쪽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두려움은 1980년대의 질 낮은 예술품처럼 읽힌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와 두려움이 만연하고 그 운율이 극도로 생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세대 전체의 능력을 실제로 약화시켰을지 모른다고 정치학자 로라 니시카와와 디틀린트 슈톨러는 말했다. 지난 세대에 미국과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젊은이들 사이의 사회 신뢰 또는 일반 신뢰 수준이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성세대도 신뢰 수준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젊은 세대가 가장 급락했다. 아동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부모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본래 사람은 선하다고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키운다고 니시카와와 슈톨러는 밝혔다.\_219쪽

어떤 공간이 낯선 이들에게 말을 걸 수 있게 할까? 니키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미술관과 관공서도 예로 들었다. 각 기관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기에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호작용이 허락된 환경이기 때문이죠.” 프로 스포츠 경기장도 이런 범주의 공간에 속한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같은 것을 본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뭔가를 제공한다.\_279쪽

브레이버에인절스에서는 대화가 참가자들이 살아온 짧은 내력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낯선 이의 인간성과 복잡성을 곧장 대면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반드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것이다. 공통점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냥 작은 다리, 유연한 유사성, 두 사람 사이의 상호 호감, 이런 것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결이 없으면 대화는 끝이다. 낮은 진보주의자와 낮은 보수주의자를 막힌 공간에 두고 “낙태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외칠 순 없다. 한쪽이 “당신은 살인자야”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그럼 당신은 여성 혐오자야”라고 하는 식의 말을 주고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_360쪽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병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 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서로 동등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호기심 말이다.\_396쪽